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설명절경축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월 1일 설명절경축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공연장소인 만수대에술극장은 혁명적대경사의 해에 맞이한 뜻깊은 민속명절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공연을 보게 된 참가자들의 걱정과 행복감이 차넘치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세련된 령도력,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이 땅우에 인민의 리상과 행복, 강국의 념원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새 세상,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설명절을 맞는 관람자들과 예술인들을 따듯이 축하하시었다.

관록있는 중요예술단체들이 출연한 공연무대에는 위대한 당, 위대한 조국을 칭송한 시대의 기념비적명곡들과 민족의 향취가 흘러넘치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 장중한 주악과 서곡 《설날아 내려라》로 막을 올린 공연에서 출연자들은 반만년 걸어온 길에 대한 가슴벅찬 긍지와 보람, 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관으로 충만된 노래들과 경쾌하고도 박력있는

오는 당중앙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심을 환희로운 노래선율에 담았다.

민요편곡이 설명절의 흥취를 돌구는 속에 애국주의주제의 명곡들이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세상에 돌도 없는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는 영광넘친 려정의 메아리가 되어 장내를 울리었다.

사회주의 내 조국을 몸과 맘 다 바쳐 길이 받들어갈 의지를 배가해주는 곡목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우리의 힘과 지혜, 분투로써 힘차게 펼쳐가는 강국의 래일이 얼마나 희망차고 아름다운가를 음악서정속에 감명깊게 펼쳐 보이었다.

걸어온 길에 대한 가슴벅찬 긍지와 보람, 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관으로 충만된 노래들과 경쾌하고도 박력있는

춤가락들로 엮여지는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자력으로 부흥의 앞길을 개척하며 세대를 이어 빛내여온 사회주의 우리 집을 세상에 보란듯이 더 높이 떠올리려는 열의에 넘쳐 절찬의 박수를 보내었다.

격정으로 달아오른 무대우에 혁명승리의 위대한 대강을 펼치며 강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펼쳐가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인민의 일편단심의 노래들이 올라 공연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우리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인민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모시고 당의 뜻에 끝까지 참되려는 일심일의 대군이 있기에 모든 승리와

영광은 우리의것이라는 철리를 새겨 주는 녀성독창과 혼성방창 《내 한생 따르리》,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당이어 그대 있기에》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끊임없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활력과 진군기상을 세차게 분출시킨 공연의 마감은 종곡 《설날아 내려라》로 환희롭게 장식되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열광적인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여 출연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뜻깊은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시기자

겨레의 가슴에 새겨진 절세위인의 통일외지

조국통일의 절박성

위대한 장군님의 겹쳐하신 품모에 배옥된 어느 한 나라의 주석은 조선의 통일문제가 지금 일정에 오르고있다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었다.

《현재 통일문제가 어떤 형편에 처해있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 최대의 숙망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이며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있는 국제정치의 초미의 문제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올해에 조국해방 40돐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지난 40년은 세계적인 진보와 변명을 이룩한 승리와 영광의 40년이었으나 전민족적견지에서 본다면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불행한 40년이었다고 하시었다.

이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우리 인민은 민족분열로 인한 재난과 불행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온 민족이 다같이 진보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수 있다고, 조선의 분열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함시적으로 위협하게 하는 긴장상태의 근원으로 되고있으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인민들은 조선의 통일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고있다고 하시었다.

계속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방침과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제안들은 다 상대측에서 진실로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실현될수 있으며 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매우 공명정대하고 현실성있는 방안들이라고 하시면서

주제74(1985)년 5월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느 한 나라의 주석을 만나시었을 때의 일이다.
이날 주석은 장군님께 조선의 통일과 관련한 세가지 질문을 올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즉석에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조국통일의 장애

위대한 장군님의 사리정연하신 대답에 배옥된 주석은 두번째 질문을 올리었다.

《통일된 하나의 조선을 건설하는데서 장애로 되는것은 어떤것들입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한것은 그 질문에 몇마디로 대답하기에는 지나간 력사가 너무도 벅찼기때문이었다.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분열을 끝장내고 통일된 조선을 건설하는데서 장애로 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두개 조선》정책을 실시하고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를 분열시킨 장본인도 미국이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주되는 장애물도 미국이다.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철거하고 미국이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나

조국통일의 전망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힘을 얻은 주석은 세번째 질문을 드리었다.

《오늘 통일문제해결의 전망이 좋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환히 웃으시며 우리 나라 통일문제해결의 전망은 락관적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공화국 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인민들과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을 포함하여 전체 조선민족이 한결같이 통일을 원하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진보적인인민들도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바라고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

이역의 동포들에게 안겨주신 노래 - 《반갑습니다》

주제80(1991)년 여름에 있는 일이다.

여러 차례 보천보전자악단의 일본공연준비사업을 료해하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느날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보천보전자악단이 일본에 가면 공연 첫 순서에 불러줄 인사의 노래를 하나 잘 만들어야겠다고 교시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은 영문을 몰라하였다.

사실 그때까지 조국의 많은 예술인들이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였지만 이렇게 특별히 인사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간 레가 없었기때문이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무르익힌 노래의 종자와 양상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바다머리 일본땅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 동포애의 뜨거운 정을 노래의 구절구절에 담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창작자들은 노래 《반갑습니다》창조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사의 표현들도 다듬어주시고 때로는 주옥같은 선율도 찾아주시면서 흠잡을데 없는 노래로 완성하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었다.

이렇게 노래가 창작완성된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과 함께 보천보전자악단에서 형성한 그 노래를 들어주시는 노래를 부르면 총련일군들과 우리 동포들이 다 좋아할것이라고, 앞으로 일본에 들어가는 우리 예술단은 처음에 이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시작하는것을 전통화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노래 《반갑습니다》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동포모두에게 보내시는 축복의 인사로 공연 첫 종목에 오르게 되었다.

그해 10월 보천보전자악단이 일본 도쿄의 《니혼세이넵강》에서 공연의 첫막을 올린 그날부터 일본전국에 《보천보선종》을 제일먼저 불어온 이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동포애와 어머니조국의 한없는 사랑을 담아신고 제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흘러들었다.

정녕 노래 《반갑습니다》는 한편의 노래이기 전에 제일동포들을 극진히 위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손길, 이 세상 있어본적 없고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은혜로운 사랑이었다.

본시기자



보천보전자악단의 일본방문공연중에서 (1991년)

본시기자 박철남

민중의 영광과 행복으로 빛나는 10년

자강력증대로 앞당겨오시는 부흥강국의 미래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삼지연시

오늘 공화국은 가장 존엄하고 긍지높은 시대인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맞이하였다.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인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탄생한것은 조선로동당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맞받아 인민을 위함에 일심 전력하고 자체의 힘을 완강히 증대시키고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이다. 특히 그것은 사회주의강국과 인류의 리상사회를 자기의 힘과 지혜, 자기의 분투로써 하루빨리 앞당겨오도록 공화국인민을 헌명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신 자강력제일주의

자강력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장엄한 려정에 들어선 공화국이 자강력제일주의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힘으로 사회주의 새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도록 진두에서 이끌어주시었다.

그 이 계 서 는 《김일성-김정일주의정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와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자강력제일주의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새로운 기적과 전변을 안아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주제 105(2016)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었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날 공장에서 생산한 가방용 천을 가지고 만든 여러가지 형태의 학생용가방들을 일일이 보아 주시던 그이께서는 성별과 연령 없이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남의 덕으로가 아니라 자기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자기의 힘을 최백배로 강화해나가는것이 바로 자강력이라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고 해도 자강력제일주의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또한 그해의 8월에는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질감산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고 설비들도 모두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제작하였는데 정말

하시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대국을 기어 올리며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결연에서 자력갱생전략은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제재책동을 자강력증대, 내적동력강화의 절호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자강력제일주의의기치를 높이 들고 다는것을 용병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강 주사기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의기치, 국산화의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신 날에는 이 발전소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들어쥐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준 발전소,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숨배여있는 발전소라고

나갈 때 더 밝고 창창한 कै일을 앞당겨오게 된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하고있다.

자강력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의 《소나무》책가방과 그속에 그흔히 들어찬 《민들레》학습장들과 《해바라기》학습용품 그리고 《금검》, 《경홍》상표의 식료품들과 《매봉산》, 《류원》상표의 신발들, 《철쭉》상표의 양말들, 《아리랑》상표의 전자제품들, 《은하수》와 《봄향기》, 《미래》상표의 화장품들은 또 얼마나 멋있고 없는 공지와 자부심으로 인민의 마음을 뽐게 하는가.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하늘에서는 우리의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질주하고있으며 땅위에서는 우리의 궤도전차, 무궤도전차가 달리고있고, 그리고 바다에는 우리 힘으로 만든 《단풍》호와 《황금해》호가 이채어장을 펼치고있고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대형잠배 《자력》호와 《장수산》호가 힘찬 고통소리를 울리고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진정 이 땅에 펼쳐진 거창한 변혁의 현실, 훌륭하게 일떠선 눈부신 건축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리상과 비범한 창조세계가 응축된 고귀한 결정체이며 우리 식, 우리 힘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는 자력갱생의 기념비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위한 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를수록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창조의 전성기, 창조의 대번영기를 즐기게 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가다듬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에 의해 공화국은 머지않아 자강력으로 세인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이 땅위에 일떠세울것이다.

자강력이 안아온 위대한 전변

자강력을 증대시켜 사회주의강국의 광휘로운 미래를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탁월한 령도에 의해 자력갱생은 공화국의 국풍으로,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투쟁정신으로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이 땅에는 세인이 경탄하는 자력자강, 자력번영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다.

이해 정초부터 강위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들이 련이어 솟구쳐올라 장엄한 성공의 메아리를 창공높이 울린것은 자력자강으로 최강의 전정역제력을 다져온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파시이다.

그뿐이 아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사상과 로선을 생명으로 틀어쥔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창건거리,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삼지연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선경거리와 산간문화도시들이 온 세상이 보란듯이 우뚝우뚝 솟아났고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문수물놀이장, 인민극장, 과학기술전당, 미림습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양덕운동원 화후양지와 같은 문명의 별천지들도 활황하게 펼쳐졌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숭고한 리념이 빛나는 평양시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보통강강안다락식 주택건설장, 검덕지구에 펼쳐지고있는 산악협곡도시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는 천만인민에게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본사기자 배영일

천출명장들을 대를 이어 높여 모신 무적의 최강군

공화국의 인민군대는 사상과 신념의 제일강군, 불패의 혁명강군이다.

인민군대가 불패의 혁명강군,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무적필승의 대오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대를 이어 최세의 천출명장들을 모신데 있다.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창건되었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장성강화되었으며 오늘날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려솔하에 최정예강군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해방후 인민군대가 건국의 첫 기술에서 새 조선건설을 총대로 굳건히 떠받들고 3년간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도하는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전승신화를 창조할수 있는것도, 미국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관문점사건을 비롯하여 적대세력들의 침략도발책동을 그때마다 단호히 짓부셔버릴수 있는것도 위대한 명장들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패의 강군으로 건설하신 조선인민군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탁월한 군사사상과 군사적예지, 비범한 령군술과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시다.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위

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경애하는 그이의 령도는 또 얼마나 만사물의 심금을 울려주는것인가.

언제나 군인대중과 함께 계시며 필승의 신념과 무비의 용맹을 키워주시고 병사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불같은 사랑, 군력강화를 위한 력사적인 대화합들에서, 때로는 포연서린 훈련장들과 전초기에서 군인들에게 총친 병사의 사명과 본분, 삶의 보람과 위훈에 대하여 새겨주시며 그들이 훈련열풍을 일으키나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는 손길, 군위부대운동과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게 지펴주시고 인민군부대들의 실동훈련과 훈련경기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위대한 령장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발아래로 굽어보며 침략자들을 일격에 짓통개버릴 담대한 배짱과 의지를 만장약하 고 언제나 격동상태에서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무적강군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위력 떨치고있는것이다.

지난해에 평양에서 있는 국방발전람회 《자위-2021》은 불패의 자위의 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여 국가방위력

강화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포부와 령도력, 실천적집행력을 집약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하고 공화국이 도달한 국방과학, 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그 눈부신 전망을 과시하는 일대 축전이었다.

주체적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력사는 위대한 명장을 모실 때 불패의 강군, 무적의 강군이 있게 된다는 철리를 2월의 진군철에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은 천품으로 지니신 천하제일명장이 높여 모시였기에 조선인민군은 언제나 필승불패이며 공화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한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녀민이 날로 높아가고있던 주체 87(1998)년 4월 18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의 50돛기념 중앙

연구토론회에 서한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보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한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독창적이고 민족애에 넘친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전생애를 바치시어 훌륭히 구현하여오신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

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와 재산의 유무,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이라는 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기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림없이 계승하여 우리 대에 조국을 통일할데 대하여 천명하시었다.

대한 사상,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합한 민족반역자들과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사상 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5대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었다. (1948년)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한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이 민족문제해결의 핵이고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이며 애국애족과 애국배족, 통일로선과 분렬로선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사대와 외세의 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해나갈데 대한 사상,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결할데

대한 사상,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합한 민족반역자들과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사상 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5대방침을 제시하시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한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이 민족문제해결의 핵이고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이며 애국애족과 애국배족, 통일로선과 분렬로선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사대와 외세의 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해나갈데 대한 사상,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결할데

대한 사상,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합한 민족반역자들과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사상 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5대방침을 제시하시었다.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의 위대한 사상을 밝혀주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받아안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상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통일애국성업에 힘차게 떨쳐나설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의 위대한 사상을 밝혀주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받아안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상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통일애국성업에 힘차게 떨쳐나설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다섯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체82(1993)년 3월 재미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였다. 어느날 동포일행을 만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데 그들에게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선생들을 만나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담화를 나누시었다.

우리 민족은 분렬로 인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통일된 강토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속시킨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능히 실현할수 있다고,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먹이 되듯이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굳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 서고있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을 통일하여야

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우리는 어떤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애국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라고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

주체71(1982)년 9월 공화국창건 34돛을 맞는 날이었다. 그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군들에게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교시를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백두의 협산준령을 넘나드시며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신것은 분렬된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였으며 수령님께서 백두영에서 등잔불을 드시고 비쳐보신 우리 나라의 지도는 백두산에서 한나산에 이르는 삼천리조선이었지 결코 두 동강이 난 조선이 아니였다고 하시었

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우리는 어떤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애국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라고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우리는 어떤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애국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라고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통일운동사에 새겨진 숭고한 화폭들
녀류동포기자의 감복

누구나 한없이 소탈하고 인자하신 품성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만나 뵈오면 그의 절세위인상에 저도 모르게 매혹되곤 하였다.

여있었고 부패한 권력자라면 그가 누구이든 예리한 붓으로 발가놓곤 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다녀오았고 만나본 지도자들도 적지 않았지만 그의 예리함과 투시력으로 볼 때 진정한 인민을 위한 지도자, 민족의 참다운 령수는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었다.

민의 령도자의 위인상에 감복을 금치 못해하였다. 더우기 나라의 통일은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이룩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문명자동들은 민족을 최우선시하시고 겨레를 열렬히 사랑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에 머리를 숙이였다.

그러한 사람들중에는 녀류기자인 문명자동메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그가 찍은 기념사진에는 장군님께 스스럼없이 끌려 매혹된 그의 심금이 그대로 담겨였다.

이러한 그가 진정으로 매혹되어 끝없는 존경과 숭배의 마음을 안고 다른 령도자가 계셨으니 바로 그이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가식없는 소박성과 진실, 한없이 넓은 도량, 인민과 민족을 우선시하시는 그런 령도자를 그는 세상 어느곳에서도 만나볼수 없었고 체험해볼수도 없었다.

26살부터 문필활동을 벌려온 문명자동포는 명망이 높은 언론인의 한사람이였다.

주체89(2000)년 6월 어느날이였다. 평양을 방문한 문명자동포를 따듯이 맞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너사를 만나주겠다고 한 《빛》을 이렇게 갖고자 시간을 냈다고 하시면서 긴장해있는 그의 마음을 대변에 풀어주시었다.

한없이 넓은 도량, 인민과 민족을 우선시하시는 그런 령도자를 그는 세상 어느곳에서도 만나볼수 없었고 체험해볼수도 없었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글을 쓰는것을 질색한 그는 자본주의사회의 온갖 부조리한 사회악을 까밝히고 특히 권력자들의 추악한 면모를 라메하고 규탄하는것을 문필가의 본령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그가 진정으로 매혹되어 끝없는 존경과 숭배의 마음을 안고 다른 령도자가 계셨으니 바로 그이

가식없는 소박성과 진실, 한없이 넓은 도량, 인민과 민족을 우선시하시는 그런 령도자를 그는 세상 어느곳에서도 만나볼수 없었고 체험해볼수도 없었다.

권력을 휘둘러 국민을 짓밟고 우롱하며 불행을 들춰우는 악한자들에게 대한 중요 심이 항상 그의 가슴에 배

너무도 겸허하시고 인자하신 그 인품에 끌리어 무렵없이 알고싶은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을 올리던 그는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인

가식없는 소박성과 진실, 한없이 넓은 도량, 인민과 민족을 우선시하시는 그런 령도자를 그는 세상 어느곳에서도 만나볼수 없었고 체험해볼수도 없었다.

조국통일문제의 성격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민족내부문제이며 이 땅의 주인인 조선인민 자신이 해결해야 할 내정문제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어느 외부세력도 간섭할수 없는 조선민족자신의 문제이다.

조선반도의 분렬력사는 한때 분렬되였던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의 지난날 다른 나라를 침략한 나라도 아니며 전제국도 아니다. 조선은 근 반세기동안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하에 있

남조선에서 반미자주, 반전 평화, 반보수투쟁열기가 더욱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1월에만도 6.15공동선언 실천 남북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과 《자주시보》, 《통일뉴스》를 비롯한 진보언론들은 미국의 대조선전적대시정책을 단죄하는 성명, 논평을 발표하여 북남관계발전에 차당분을 내리고 평화와 통일의 꿈을 짓밟고있는 미국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각계층이 적극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다른 각계층 단체들도 서울주재 미국대사관과 평택, 룡산, 오산 등지의 미군기

지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 미군풍자공연, 길거리현수막제와 같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반미반전투쟁을 활발히 벌리고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이 분렬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해방후 외세가 저들의 침략적야망실현을 위해 우리 나라의 절반 땅인 남조선에 틀고앉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라의 절반땅에서 외세를 내쫓고 통일을 이루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자주적권리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조선에서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충탁하고 구걸하고있는것은 민족적자존심마저 꺾버리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사대매국적인 행위이다.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풀어보려 하는것이야말로 제 집에 불을 지른 범죄자에게 불을 꺼달라고 애걸하는것과 같은 참으로 어리석은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 누구도 조국통일을 위

중단하라!》... 남조선에서 터져나오는 이러한 준렬한 웨침은 침략자, 강점자인 미국을 단죄하는 성도이며 외세없는 자주의 땅, 전쟁위험이 가서진

통일교실

조국통일문제의 성격

우리 민족이 분렬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해방후 외세가 저들의 침략적야망실현을 위해 우리 나라의 절반 땅인 남조선에 틀고앉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라의 절반땅에서 외세를 내쫓고 통일을 이루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자주적권리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조선에서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충탁하고 구걸하고있는것은 민족적자존심마저 꺾버리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사대매국적인 행위이다.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풀어보려 하는것이야말로 제 집에 불을 지른 범죄자에게 불을 꺼달라고 애걸하는것과 같은 참으로 어리석은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 누구도 조국통일을 위

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해줄수 없으며 조국통일문제는 오직 우리 민족이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은 통일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갈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민족내부문제이며 이 땅의 주인인 조선인민 자신이 해결해야 할 내정문제라는것을 다시 깊이 인식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성업에 모든 것을 다하여야 한다.

형태의 투쟁들을 적극 벌리고있는데 대해 련일 보도하고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더욱 과감히 벌어지는 반미, 반전, 반보수투쟁은 자주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민심의 지향과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여실히 실증해준다.

겨울의 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봄이 오는것은 막을수 없는 법칙이다.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 백영환

자주와 평화, 통일의 불을
안아오려는 강렬한 의지의 불꽃

《군사훈련강행으로 국민 안전 위협하는 주한미군 규탄한다!》, 《한반도정세 긴장화의 주범은 물러가라!》,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을 영구

영원한 평화를 안아오기 위한 남조선민심의 정의의 목소리이다. 한편 개혁과 초불천련련대, 대학생공동행동 등 진보세력들과 언론들은 동족대결

권개선》 등의 망발을 웨친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후보 윤석열과 그를 비호두둔하면서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국민의 힘》을 규탄배격하는 여러

권개선》 등의 망발을 웨친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후보 윤석열과 그를 비호두둔하면서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국민의 힘》을 규탄배격하는 여러

통일을 불러

련북애국의 길에서 빛나는 삶 (1)

평양에는 속설처럼사적으로 불려오는 잊지 못할 곳이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마다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바라보는 통일전선탑의 비문에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길에 헌신한 조완구선생의 이름도 뚜렷이 새겨져있다.

서 쓰러져가는 봉건왕조의 관직에 올랐다. 1905년 11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이른바 《보호》라는 미명아래 강도적으로 날조된 《을사5조약》은 당시 24살의 열혈청년이었던 선생의 가슴에 울분과 통탄만이 가득차오르게 하였다.

일제의 《한일합병조약》날조후 조선에 대한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가 더욱 강화되자 선생은 종교를 통한 국권회복운동에 힘을 기울이였다.

로써 일제에게 항거하는 교주의 의로운 모습들은 선생으로 하여금 나라의 독립에 일생을 바칠 비장한 각오를 더욱 굳게 하였다.

조완구선생은 1881년 3월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아버지가 조선봉건왕조의 리조참관을 지낸 가세가 큰 판포가문의 3남중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비분을 참을길 없어 선생은 관복을 벗어던지고 결연히 독립투쟁의 길에 나섰다.

그러던 1914년 대종교총본사가 북간도로 옮겨가자 선생은 그곳으로 망명하였다.

떠나간 명혼들의 절규를 되새기며 선생은 결심품고 일제를 반대하는 독립의 길을 걷고 또 걸었다.

조완구선생은 1881년 3월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아버지가 조선봉건왕조의 리조참관을 지낸 가세가 큰 판포가문의 3남중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자기의 집마저 팔아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다나니 집없는 신세에 처하였지만 선생은 독립의 일념을 안고 계몽연단을 떠나지 않았다.

대종교가 사람들에게 민족의식, 독립정신을 불리일으키자 일제는 1916년 강제교 교문을 폐쇄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떠나간 명혼들의 절규를 되새기며 선생은 결심품고 일제를 반대하는 독립의 길을 걷고 또 걸었다.

그가 출생하여 성장하던 시기는 말그대로 망국의 구름이 날로 짙어가고있던 다사다난한 시기였다.

이런 속에서 선생은 21살의 나이에 서울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고종황제의 승훈부내부주사로

이것이 《한일합병조약》소식에 너무도 비분강개하여 《나라가 깨지고 임금이 망했는데 죽지 않으면 무엇하랴》고 통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처남과 자결

가문의 기등으로 바라보던 선생의 외아들마저 잃는 슬픔도 이겨내야만 했다.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는 웨치다싶이 말했다. 본사기자



조완구 선생

사회주의문화농촌에 늘어나는 식솔들

공화국에는 노래 《도시처럼 시집와요》가 있다. 인민들 특히 청년들이 누구나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이 노래는 도시처럼 고개 넘어 령을 넘어 뱃길을 타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시집오는것을 형상한 가요이다.

농촌마을이 도시처럼 지 않은 선경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이 반영되어있는 이 노래는 1990년에 창작되었다. 노래가 창작된 때로부터 30여년 세월이 흘렀지만 이 노래는 오늘날도 공화국의 농촌들에서 변함없이 울리고있다.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 농촌으로 탄원한 속에 농장 청년들만이 아닌 도시처럼 들도 협동농의 주인이 되어 농촌을 살기 좋은 리상촌으로 꾸러가고있다.

얼마전 취재길에서 만난 은파군 대청리의 한 농장일 군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난다.

《당의 은정속에 대청리가 천지개벽되니 평양에서까지 보금자리를 꾸리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디 그뿐 입니까. 새 마을이 일떠선 후에 도시에서 시집오는 처녀들도 많아져 새 가정이 늘어나니 지난해에만도 수십명의 새 생명들이 태어났습니다. 날을 따라 새 식솔들이 계속 늘어나는 우리 대청리입니다.》

어찌 대청리뿐이라. 이제 머지않아 공화국의 농촌마을 그 어디나 새롭게 변모되어 더욱 아름다워질 사회주의리상촌들을 찾아오는 새 식솔들은 끝없이 늘어날 것이다.

살기 좋은 문화농촌에 늘어나는 새 식솔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조선로동당의 현명함 정도에 날로 꽃피어나는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새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

본사기자 김춘경



줄어드는 농촌인구

—남조선의 농촌실태—

최근 남조선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지방들이 청년층류출과 고령화심화, 인구감소 등으로 하여 자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0살녀성인구를 해당 지역의 65살이상 고령층인구수로 나눈 값으로서 위험지수가 0.5미만이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현재 남조선의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220여개 시, 군, 구·군에 108곳, 3500여개의 읍, 면, 동 가운데 1791곳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있는것은 젊은 층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 대대적으로 빠져나가고있는것과 관련된다고 한다.

남조선에서는 판매액이 높은 1000여개의 기업들중 743개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는것으로 하여 지방의

《수도권》 지역과 대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교육격차가 매우 큰것으로 하여 《수도권》 지역대학 학생들의 퇴학비율은 3.2%이지만 지방대학은 5%를 넘고있으며 취업률도 지방대학출신들은 59%로서 《수도권》 지역대학출신(66%)보다 낮다고 한다. 의료환경을 놓고보아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서울시가 3.1명이지만 충청북도 등의 지방은 1.5명밖에 되지



본사기자

대 담 도서 《임진조국전쟁총서》에 대하여

—사회과학출판사 박사, 부교수 리호성과 나는 이야기—

최근 사회과학출판사에서 새로 출판한 도서 《임진조국전쟁총서》가 독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과학출판사 박사, 부교수 리호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 자: 임진조국전쟁은 우리나라 반침략투쟁력사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리 호 성: 옳은 말이다. 임진조국전쟁은 조선인민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조국을 보위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해 일본침략자들과 결사적으로 싸운 중세 우리 민족사에서 규모가 큰 전인민적인 애국투쟁이었다. 간악한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임진조국전쟁은 애국심에 불타는 전체 인민의 거족적인 투쟁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결속되었다.

기 자: 임진조국전쟁과 관련하여 총서형식의 도서가 출판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국전쟁총서》에서는 임진조국전쟁의 전 력사적행정에 대해 구체적인 력사기록들과 내외의 도서자료, 깊이있는 연구분석에 기초하여 내용을 보다 종합체계화하였다.

기 자: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시겠으면 한다.

리 호 성: 《임진조국전쟁총서》(군사제도)에서는 임진조국전쟁이전시기 군사제도와 전쟁시기 중앙군과 지방군의 군사제도, 신분구성, 병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있다.

《임진조국전쟁총서》(군사전법 및 군사인물)에서도 전쟁시기에 취한 조선봉건왕조의 전라전술적조치들, 판군과 의병들이 특지와 바다싸움에서 적용한 전법들을 체계화하고 그 우수성과 교훈에 대해 해명하였다. 전쟁승리에 기여한 인물들과 그들의 군사적공적도 개략적으로 소개평가하였다.

《임진조국전쟁총서》(민족고전 및 문학유산)에서는 전쟁시기의 민족고전들이 력사기록류, 일기 및 기행문, 문집류, 류서 및 전기류, 금석문류로 세분화되고 그 대표적

것들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수많은 문학유산들이 격문, 설화, 소설, 죽어시가 등으로 구분되고 작품들의 주제사상적내용이 분석되어있다.

다음으로 《임진조국전쟁총서》(일본침략군의 만행)에서는 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이 감행한 조선인학살 및 랍치만행, 문화재파괴학살만행과 그 후과 등을 전면적으로 개괄하였다. 도서 《임진조국전쟁총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전 력사적과정을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방대하게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나라 반침략투쟁사를 연구고증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 자: 좋은 이야기들 들었어.



조선로동당의 교육중시사상에 떠받들려 2018년 1월에 일떠선 평양교원대학은 훌륭했다.

이미 신문과 방송으로 보고 들어서 일정한 파악은 있었지만 실제 와보니 류다른 감정을 자아냈다. 대학생교복을 산뜻하게 차려입고 대학구내를 오가는 대학생들을 보니 홀리간 나의 대학시절이 떠오르면서 이런 멋쟁이대학에서 다시 공부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곳 안내원의 종합해설에 의하면 평양시의 소학교와 학령전어린이교육을 담당한 교육자양성의 원동장으로 불리는 평양교원대학은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본보기대학으로 잘 꾸러지고 전국에 일반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개건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짧은 기간에 완공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었다.

그러하여 평양교원대학이 짧은 기간에 다양한 정황처리 능력을 키우고있었다.

대학에서는 소학교교육현실에 조성되는 인식정황, 규율정황, 외적요인에 의한 정황들을 능숙히 처리할수 있는 강의를 체득하도록 한다.

유치원교실과 가정교실에서는 가상놀이프로그램 《금모래 1.0》과 가상안경프로그램 《태양계》, 《북두칠성》, 가상체육유희프로그램을 리용하여 자연계에 존재하는 하늘, 땅, 바다의 지형과 생태이론, 태양계의 움직임과 특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생동하게 체득할수 있게 한다.

이날 대학참관중에 제일 구역에 남은 교실이 있었다. 어머니교실이었다.

그이름으로 따듯한 정이 감도는 교실, 류달리 눈길을 끄는 교실이었다.

목심한 이불이며 꽃베개, 밤상에 놓여있는 숟가락과 저가락, 옷장에 포개져있는 고운 옷들을 보면 어머니의 고된 손길이 느껴지고 자장가소리도 울릴듯싶었다.

그전에 보던 교실과는 표상이 완전히 달랐다. 교실이 라고 하면 의례히 책상과 의자, 칠판부터 생각하는것이 상례였던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양 유치원, 애육원을 찾으시어 원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것은 부모의 정이라고,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원아들을 돌

이들을 위해 배려하시는 나라의 관심과 해례를 가슴속 깊게 느꼈수 있었다.

이밖에도 모든 실기실들과 보급실들을 통해 창조적인 소고능력을 키우기 위한 소조 토론방법, 가상현실교편문제 제작방법과 가상적인 교수정황 제작기술, 가상현실감각기술을 리용한 교육용영상면접기술, 3D인쇄기를 리용한 교편문제 작기술 등을 가르치고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부속 소학교와의 원격쌍방향교육 방법, 소학교, 유치원의 각이한 환경에서 교편물리용방법, 소학교교육에서 교수와 교양의 결합방법,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결합방법 등 수많은 교육방법들도 배워주었다.

대학체육관의 경기홀은 룡구, 배구, 탁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경기는 물론 다양한 행사도 할수 있도록 다기능홀로 훌륭히 꾸려져있었다. 과학기술전당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는 도서관은 콤퓨터국가망을 통하여 인민대학상담과 과학기술전당의 자료들을 열람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손색없이 꾸려져있었다.

재중동포 김영란

독특한 형태와 무늬, 색깔로 하여 민족적색채가 뚜렷이 안겨오는 조선옷.

언제 어디서 보아도 조선옷이 안겨주는 민족적정서와 미학적감흥은 류별나다.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강직한 조선민족의 넉과 기상이 그대로 비껴있는 훌륭한 전통옷을 가지고있는것은 민족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

얼마전 우리는 조선옷을 잘 만드는것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민속박물관 민족의상제작소를 찾았다.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조선옷의 매력과 멋을 살려가는 의상제작자

— 조선민속박물관 민족의상제작소 소장 리미화 —

화소장을 찾아와 직접 조선옷을 만들어줄것을 부탁했다.

시간이 툇 지나서야 우리는 리미화소장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다.

그 과정에 그가 남달리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가 높다는것을 느꼈수 있었다.

—조선옷은 그 력사가 길지만 현재까지 전통적인 자기의 본태를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부분구조들이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하면서 발전하였다.

—조선옷의 료판들은 대체로 직선으로 되어있으므로 입으면 몸체의 료판보다도 옷의 료판선이 강조되어 우아하면서도 매우 품위있어 보인다. 그리고 옷의 개별적인 요소들인 동정과 한쌍의 옷고름, 선이나 회장, 색동 등을 말해주는듯싶었다.

《술한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조선옷전시회에서 1등을 한다는것이 쉽지 않았는데 솜씨가 대단한 모양입니다.》

《민족적색채가 짙은 조선옷의 고유한 멋을 살려주는 체형에 맞게 살리려고 노력하였을뿐입니다.》

우리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우측문자들이 리미

화소장을 찾아와 직접 조선옷을 만들어줄것을 부탁했다.

시간이 툇 지나서야 우리는 리미화소장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다.

그 과정에 그가 남달리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가 높다는것을 느꼈수 있었다.

—조선옷은 그 력사가 길지만 현재까지 전통적인 자기의 본태를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부분구조들이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하면서 발전하였다.

—조선옷의 료판들은 대체로 직선으로 되어있으므로 입으면 몸체의 료판보다도 옷의 료판선이 강조되어 우아하면서도 매우 품위있어 보인다. 그리고 옷의 개별적인 요소들인 동정과 한쌍의 옷고름, 선이나 회장, 색동 등을 말해주는듯싶었다.

《술한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조선옷전시회에서 1등을 한다는것이 쉽지 않았는데 솜씨가 대단한 모양입니다.》

《민족적색채가 짙은 조선옷의 고유한 멋을 살려주는 체형에 맞게 살리려고 노력하였을뿐입니다.》

우리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우측문자들이 리미

의 매력과 멋을 살려나가려는 불타는 열정이 조선옷을 잘 만들어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비결임을 확신했수 있었다.

애국의 마음을 안고

리미화소장이 조선옷제작에서 특기를 보이고있는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어려서 남달리 춤을 좋아한 리미화소장은 공연때면 늘 치마저고리를 입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 나날 그는 치마저고리에 류다른 애착과 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차츰 나이가 들면서 그는 자기 손으로 직접 치마저고리를 만들어 입고도 했다. 그때만 해도 취미로 하던 조선옷제작이 리미화소장의 마음속에 민족의 넋을 지키기 위한 애국적인 사업으로 자리잡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언제인가 그가 조선민속박물관에 배치받았을 때 그의 재능을 알게 된 한 료연구사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선옷에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지혜가 깃들여있어요. 동정과 깃, 소매끝등을 옷의 바탕색과 조화를 이

나 다시 고쳐 설계하였다. 사실만으로도 조선옷제작에 바쳐온 그의 피라는 노력을 잘 알수 있다.

그의 불같은 열정이 있어 조선민속박물관 민족의상제작소에서는 지난 몇해동안 조선옷의 옷과 아래옷은 물론 마고자와 배자를 비롯한 덧옷의 색조화를 보다 세련시켰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미적감정에 맞게 무늬장식을 곁들여주면서도 아름답게 하였다. 특히 료송단을 비롯한 남편의 비단천으로 여러가지 옷을 잘 만들어 우리의 천으로 제작한 조선옷이 제일이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딸과 며느리도 민족의상제작의 길에 나서게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전통을 바탕으로 해야 진정한 조선옷이라고 봅니다.》

조선옷제작에 심혈을 바쳐수십여년, 그 나날에 그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하게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

사에 대표로 참가하는 영예도 지녔었다.

한생 있을수 없는 그날의 감격을 깊이 간직하고 그는 오늘날도 우리 민족의 자랑이 고 긍지인 민족의상을 발전시키는데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딸과 며느리도 민족의상제작의 길에 나서게 하였다.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도 있는데 쉬엄쉬엄 일하라고 할 때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내가 만든 조선옷을 사람들이 즐겨 입을것을 보면 힘든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상을 발전시키는 길에 한생을 바칩니다.》

본사기자 김철



시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후안무치한 망동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공식 결정하였다고 한다.

사도광산은 일본의 전범기업인 미쓰비시회사의 소유였고 지난 세계 일제가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위한 전시물자확보를 위해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들여 노예로동을 강요했던 피눈물과 죽음의 고역장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근대시기 일본최고의 금광이었고 지금은 관광지라는 점만 부각시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하려고 하고있다.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세력은 등록신청을 빨리 강행해야 한다고

현 일본당국을 부추기고 일본의 국우세력들은 자국주민들이 사도광산의 등록신청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를 내뿜으며 여론을 오도하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섬나라의 파렴치성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섬나라족속들이 일본군성노예범죄와 조선인 강제징용문제를 비롯하여 지난 세기에 우리 민족과 세계인민들에게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죄악에 대해 전면부정하다 못해 미화분식하고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에 대한 《명유권》을 주장하는 등 역사외곡과 군국주의부활, 채찍책동에 광분하고있다는것은 사실이 다 아는 사실이다.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일본의 책동은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 조선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사도광산이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인간의 존엄을 마소의 반쯤로 저락시킨 인권유린, 인권말살범죄, 저들의 침략야망실현을 위해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이친 반인륜적죄악을 《관광》의 너울로 감싸고 《인류문화유산》으로 만들겠다는 섬나라들의 망동은 인류를 상대로 감행하는 또 하나의 범죄행위이다.

죄악의 실제인 사도광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왜나라족속들의 행위는 저들의 치명리는 과거의 죄악을 미화하고 나아가서 전범국의 오명을 벗어던지고 제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흉심에 따른 것이다.

죄악의 발자취를 외국의 공매이로 력사의 폐지에서 가리우고 재침의 발판을 마련해보려는 사무라이후예들의 음흉한 기도는 조선민족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저주하고 단죄배격해야 할 또 하나의 반인륜적죄악이다. 우리 민족과 인류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대죄악과 오늘 또 다시 저지르고있는 추악한 범죄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사도광산



사도광산 갱내부

《로점상은 합법적인 폭력에 내몰렸다》

《서른여덟, 사업에서 실패한 7세가 거리로 나와 장사를 시작해 어느덧 11년이 흘렀다. (왜 다른 직업이 아니라 로점상이 되었냐.)는 질문에 그는 (당시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고 했다. 부모님이 양방병원에 계신 그는 병원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 15시간을 일하지만 일주일이나 보름씩 간병을 위해 병원에 머무르기도 한다. (어느 회사가 하루 15시간씩 특근을 시켜주고 부모님 아프다고 보름씩 쉴수 있게 해주냐요?) 로점상이죠. 웃으며 던지는 말에서 그가 감당하는 일상의 무게를 짐작할수 있었다.

2021년 가을과 겨울, 전국의 로점상 100명가량을 만났다. (COVID-19) 대유행시기 로점상의 소득감소와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만남을 시작했는데 인터뷰를 하다보니 각자 로점을 시작한 이유에 눈길이 갔다. 사업실패와 실적이 대개 첫번째 이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두번째에 있었다. 돌볼 가족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경력이 없어서, 자신의 기술은 이제 세상에 쓸모없어서 같은것이 두번째 이유를 채우고있었다. TV기술자부터 양복을 만들던 사람까지 직장을 잃고 로점상이 됐고 경력없는 가장이 돼야 했던 여성들과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로점상이 됐다.

로점상은 세상의 실업, 빈곤과 관련이 깊다. 더불어 본인이나 가족돌봄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혹독한 노동환경이 로점상이라는 좁은 길을 연다. 하지만 이런 사정은 잘 고려되지 않는다. 왜 로점상으로 살아야 하는지 묻지 않고 어렸든 불법이니 철거해야 한다는 립장만 남을 때 로점상들은 합법적인 폭력에 내몰렸다.

로점상철거를 위해 구청이 세금으로 (철거용역)이라는 폭력을 사는것이냐 이 폭력을 승인하는

사회의 모습으로 보건대 차별의 근거가 되는 편견은 이미 확고히 관철된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9 292개였던 로점상은 2020년 6 079개로 34% 줄었다. 열심히 쫓아낸 결과이기도 하고 장사가 안돼 스스로 문을 닫은 결과이기도 하다. 100명의 로점상을 만나고난 뒤 이 수자가 슬퍼졌다. 서울시가 성과로 보는 이 수자는 누군가의 비빌 언덕, 삶의 터전이 사라진 자리다.

최근 로점상들은 로점을 불법으로

로만 명명하지 말고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범망을 만들것을 청원하고있다. 빈곤과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 사회에서 로점상만 잡도리해서 만들어지는 깨끗한 거리는 진실을 가릴뿐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로점상조차 될수 없을 때 누군가의 생존이 당한다는 사실이 좀 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면 도시와 함께 로점상이 살 방법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

《한겨레 21》 2022년 1월 24일호에서 전재)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

남조선언론들이 여야당사이의 갈등과 대결이 더욱 첨예해지고있는데 대해 보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현재 《국민의힘》은 현 당국의 정책실패를 부각시키는데 열을 올리고있다는것이다.

《국민의힘》은 당국의 집권 5년은 《일자리가 무너진 5년》, 《세금폭탄으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한 공포의 5년》, 《망나

니와 같은 부동산정책으로 내 집마련의 꿈이 수포로 된 5년》이라고 비난하고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비난에 더불어민주당은 현 당국의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정권심판》의 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국과의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서고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당국의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정

책실패에 대해 무릎까지 꿇고 사죄하는 울음을 범했는가 하면 부정부패에 런루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6월 지방자치선거에는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당헌신안》이라는것도 발표하였다고 한다.

현재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치는 새해에 들어와서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

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권력야망에 열이 오른 여야정객들은 당리당략만 앞세우며 정쟁에만 몰두하고있다.

소생활을 모르는 민생고는 바로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안중에 없이 저희들이 권력을 잡으면 마치도 무엇을 할것처럼 생생하게 무안열증하는 사이버정객들때문이다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황금숙

전례 없는 《사과풍년》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왜 2022대선은 (사과풍년)이 됐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22년 《대선》은 후날 《사과대선》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될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율하는 《사과풍년》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울려나온다고 한다.

여야당후보들이 매일이다실이 《권력사과》와 《늘물사과》를 벌리고 심지어 실제 사과까지 등장하는 일이 지속되고있다고 하면서 신문은 사과의 내용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당국의 정책실패나 정치적갈등뿐만 아니라 후보들 자신의 개인사, 자녀, 처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피리에 피리를 물고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는 두번

이나 유권자들을 향해 큰절을 올렸고 《국민의힘》의 《대선》후보와 그의 처도 수차례나 고개를 숙이였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정치인들의 사과가 회수, 대상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대폭 늘어난 리유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자체에 문제가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남조선 각계와 언론들이 평하는바와 같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후보로 내세운 사람들도 보면 본인의 경력에서 문제가 많은것은 물론 자식문제, 처문제 등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얽혀있어 유권자들의 불만과 비난을 사

고있다. 남조선에서 주요 부정부패사건으로 거론되는 대장동계발투해의혹사건만 보더라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깊이 얽혀져있는것으로 하여 매일같이 여론이 시끌벅적하다.

본인들도 문제인데 거기에 더 치라는 사람들까지 신통히 갖은 문제거리들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함강에서 《력대 최대의 비호감선거》라는 비난까지 울려나오고있는 판이다.

이렇게 인물들자체가 의혹투성이고 말썽거리로 되고있으니 그들의 속이 뻔히 드러나보이는 《사과》놀음에 누구도 박수를 쳐주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좀 다시 봐달라고 사정하며 유권자들을 상대로 거짓눈물까지 짜내며 애걸복걸하고있는것이다.

여야당후보들이 사과에 사과를 거듭하지만 오직 일신의 향락과 영달을 위한 야욕, 어떻게 하나 민심을 얻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해보려는 야망이 허구된 정치민화를 연출하게 한것이라는것이 남조선민심의 평이다.

남조선에서의 전례없는 《사과풍년》, 이것은 굶을대로 굶은 남조선정계의 어두운 리면을 다시한번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정혁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남조선잡지 《시사저널》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있다.

《선호씨, 아버지 절대 용서하지 말고 가라. 미안하다.》

평택항부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로 숨진 23살 대학생 리선호씨의 아버지 리재훈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선호씨는 학비보편을 위해 아버지가 하청업체소속으로 일하는 현장에 함께 나와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동식물검역관련일을 맡았던 선호씨는 개방형집합의 방목날개를 닫는 현장에서 일했다. 어떠한 안전교육도,

안전장비도 없었다. 선호씨는 한쪽잡합날개아래에서 쓰레기를 치우고있었다. 이를 보지 못한 지게차기사가 반대쪽잡합날개를 닫았다. 사고당시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안전관리자도, 지게차신호수도 없었다. 안전수칙이 단 몇개라도 지켜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사고의 직접적인인은 분명 안전규칙을 무시한 업체에 있다. 그러나 평택 안중백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만난 선호씨의 아버지 리재훈씨는 정직권을 향해 분노를 표시했다.

《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합

니까.》

어디서부터 비롯된 분노였을까.

리재훈씨는 조문을 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부가 출범할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근로자가 저녁에 집으로 못돌아오는 일, 두 번다시 만들지 않았다고 하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으면 현장에 나와서 한번 확인이라도 해야 하는것 아닌가.》

그러면서 리재훈씨는 《이 사회의 공무원은 이렇다.》며 격분했다.

심지어 해수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선호씨 사고이후에

이 있다는 뜻이다. 거기에 더해 사고이후 《정부》의 대처는 더욱 분노를 유발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선호씨 사고이후 상급기관에 《바람에 철제잡합추면이 걸렸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왜 그렇게 보고했냐고 물으니 회사관계자가 말해주길 그대로 보고했다고 하더라.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으면 현장에 나와서 한번 확인이라도 해야 하는것 아닌가.》

그러면서 리재훈씨는 《이 사회의 공무원은 이렇다.》며 격분했다.

심지어 해수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선호씨 사고이후에



본사기자

만화는 얼마전 《의교안보 정책공약》의 하나로 《대북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망언을 늘어놓은 윤석열을 전쟁미끼공이인 히틀러에 비겨 풍자하면서 《전쟁광 윤석열》가 군부무력도 없으면서 《전쟁》을 부르짖으며 분별없이 날뛰는데 대해 신랄히 조소하였다.

신문들은 구태의연한 《색갈론》인 《선제타격》발언을 계속하면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쫓고있는 윤석열에게는 국민들의 안전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한 해설글을 덧붙였다.

본사기자



평양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



호평받는 《백학》 제품들

튼튼한 이발은 건강과 젊음의 원천이다. 로화는 이발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이발이 든든한 것을 오복중의 하나로 일러왔다.

사람의 수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이발을 튼튼히 보호하자면 치과위생을 잘 지키는 것과 함께 좋은 치과위생용품을 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화국의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 《백학》 상표를 단

치과위생용품을 전품으로 생산하여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치솔, 혀술, 혀개며 합수약, 치약들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높다. 곱 불 안이라고 쓰기 편리하고 효과가 좋아 사람들 또한 한마디씩 하며 사간다고 한다.

《백학》 상표를 단 박하치약을 주세요. 이 치약을 쓴 다음부터는 다른 치약을 쓰지 않게 됩니다.》

본사기자



인류의 개성악과

개성악과에는 꿀, 참기름, 생강 등 영양에 좋은 재료들이 들어있어 진귀한 맛이 나며 좋은 약리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허약, 기관지염, 만성위염, 위아픔, 신경쇠약, 고혈압 등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밀가루 600g, 당 100g, 사탕가루 600g, 꿀 100g, 소주 80g, 생강 15g, 잣 15g, 계피가루 3g, 튀기용기름을 준비한다.

밀가루에 참기름, 생강즙, 소주, 계피가루, 꿀을 두고 반죽하여 0.5cm



본사기자

속담과 뜻

◇ 갓 마른에 첫 비선
마흔살이 되어 처음으로 비선을 신는다는 뜻으로서 오랜 뒤에 기대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경우를 이르는 말.

◇ 뒤에 불 나누는 그루를 묻는다.
앞으로의 희망이나 기대를 건 대상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관심을 더 돌린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고생끝에 락이 온다.
무슨 일이나 간고분투하여 힘든 고비를 이겨내면 마침내 그 보람이 있어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2월의 절기와 민속

2월의 절기에는 립춘과 우수가 있다. 24절기의 첫번째 절기인 립춘은 봄이 시작되는 절기라는 뜻이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립춘을 맞으며 집안팎을 깨끗이 손질하고 그해의 소원이나 새봄을 맞이하는 글을 써서 대문이나 벽장 같은 데 붙이곤 했으며 울과, 김강채 등으로 봄의 향취가 풍기는 음식들을 만들어 먹었다.

립춘시 농사에 해당하는 풍습에서 특색있는 것은 소와 관련한 의식이 많이 진행되었었다. 지방에 따라 나무로 만든 소를 마물로 끌고 다니기도 하고 나무소에 농쟁기를 에워 발가는 시농도 하였으며 부림소를 리용하여 얼마간의 밭을 갈기도 하였다.

우수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일러오는 말이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에 들어서면 북부의 고산지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온도가 0°C 이상으로 올라가며 눈석이 시작되는데 농민들은 눈석이 물을 웅덩이마다에 잡아두고 농사치비를 서둘렀다.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에 훗날이, 바졸당기, 널뛰기, 연퍼우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민속놀이도 진행하곤 하였다.

올해의 립춘은 2월 4일이고 우수는 2월 19일이다.

본사기자

유구한 령사, 찬란한 문화 금동소형탑들

고려시기에 만든 금동소형탑들은 불일사5층탑의 둘째 몸통의 흉안에서 나왔다. 이 탑들은 전반적인 균형이 잘 잡혔을뿐 아니라 그 제작수법 또한 매우 섬세하다. 현재 금동소형탑들의 도금은 거의 벗겨져 일부에만 남아있으나 이것만으로도 처음 만들었을 때 이 탑들의 화려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탑들의 탑몸은 우로 올라가면서 완만하게 차례를 줄이 주었다. 지붕돌의 처마는 비교적 길게 뻗으면서 끝을 힘있게 들어올렸으며 처마 밑에는 바람방울을 달았다. 경쾌하면서도 우아하게 쌓아올린 금동소형탑들의 생김새는 전체적으로 보면 웅건하고 부분적으로 뜯어보면 그 하나하나가 매우 정교하다.

본사기자

겨울철 머리칼건강

겨울철에 머리를 감을 때에는 연한 물비누를 써야 하며 비누물을 말끔히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칼이 윤기를 잃게 된다.

머리를 감은 후 젖은 머리로 찬바람을 맞는 것은 더욱 나쁘다. 추위로 하여 머리피부속에서는 혈관경련이 일어나고 피순환이 잘되지 않아 머리칼이 빠진다.

머리칼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돌 때에는 산수화물량이 적은 음식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비타민부족증을 느낀다. 머리칼도 예외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머리칼의 《내부》영양상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쉽게 말하여 비타민을 적당히 섭취하지 않으면 머리칼이 잘 빠지게 된다.

머리칼에 절실히 필요한 비타민은 A, B, C, E이다. 머리단장도구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본사기자



금동 3층탑



금동 5층탑



금동 9층탑

사화 돌칸한증 (5)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 어느덧 수백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나라리름도 달라지고 임금도 갈리고 어지거리를 거둬하는 속에서 한중도 그 면모가 많이 변화하였다.

변하지 않은 것은 한중간 주인을 그때나 이때나 최서방으로 부르는 그것뿐이라고 할까. 《그것은 대체로 서너가지 리유때문이라고 할수 있지. 우선 몸을 덥히는 시간을 무료로 하게 보낼수 없기때문이고 그 다음은 한중시간을 정확히 가능하기 위해서이며 접지기 어려운 뜨거움을 훑취하는 녀두리로 잠시라도 잊어보려 하는 까닭일세. 그래서 썬세기를 하는것을 가능한다구 하지 않나. 입자가 한중간안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게. 자연히 썬세는 리치가 알린다네. 한중하는 사람들을 짐승으로 위해주자면 한중의 리치를 알아야 하거던.》

《알겠어요.》
춘득이는 최서방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면서 옷을 벗고 한중간안으로 들어갔다. 한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중간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서였다.

소나무를 태워서 한중간을 달군데다가 심신한 청술까지를 넣어둔 까닭에 화끈한

한중간안에서는 송진내가 진하게 풍겨왔다. 광술불이 회피하게 비치는 컴컴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가늘을 세고있었다.

한데 맛고 하는 소리 한 일자로 아뢰리라 일편단심 다진 맹세 한 랑군 섬기리라 한개 형장 맛았다고 한마음 변하리까 아니되오 아니되오 허락이란 쁘 말이요

두대 맛고 하는 소리 두이 자로 아뢰리라 이팔청춘 이내 몸이 두 랑군 섬기리까 두개 형장 맛았다고 두마음 가지리까 아니되오 아니되오 허락이란 쁘 말이요

춘향이가 형통에 매여 매를 맞으면서도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매를 세는 형식을 빌어 일, 이, 삼... 순서로 열, 백까지 엮어나가는 썬세기도래였다.

그쪽에서만 춘향전이나 이 쪽에서 춘향전이었다는듯 다른 구석에서 누구인지 석실한 목소리로 다른 류형의 춘향전을 풀어내리기 시작하였다.

떨너춘향 거동보소 떨너 춘향 말 들어보소 왔구나 왔구나 그 사람이 왔구나 거렁뱅이신세하고 네 서방이 어서어서 죽기 전에 실컷 만나나보렴

아니아니 누가 왔나 서방님이 오시더니 옥살창뎀으로 손이라도 만져보세

대기 시작하였다. 우리 부모 나를 낳아 예지 중지 키울적에 이웃간에 화목하고 친구 간에 의리깊고 옷사람을 존경하고 아래 사람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성하고 나라에는 충성하라 하였거늘

비류직학 삼천척(공추 날아 떨어지는 목포수가 3천척이라는 박연폭포의 바위에 새겨진 옛 시의 한구절) 예가 바로 박연일세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말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일이 만공산하니 쉬어감이 어떠리



행인거지 되었다고 사람 팔시 아예 마소 잘났어도 내 랑군 못났어도 내 랑군

춘향전 썬세기노래가 그친 때쯤에서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농사일에 힘쓰는 우리 농군네들의 생활을 담은 노래가 여기 있다는듯이 구석에서 또 다른 사람이 청높은 소리로 엮어

다양하고 내용에 제한이 없는 즉흥적인 흥얼거림인데 그 흥취도 흥취이지만 뜻이 깊어서 새겨들을 맛이 있었다. 어떤것은 옛 민들의 시조를 자기식으로 두루 맞추어 부르는 열치기너두리갈았지만 듣고보니 고향자랑, 나라자랑이 록 배어있는것이였다.

팔도강산 유람할 때 천마산을 굽어보니

이 노래가 춘득에게 제일 인상깊게 들리었다. 천마산, 박연폭포라는 소리가 친근하게 들리는데다가 뒤에 덧붙은 시조 역시 어릴적부터 많이 들었던 시조여서 그랬을가. 어쨌든 춘득은 한중간에 없어서는 안될것이 썬세기노래라고 생각하면서 덩고 숨막히는 것을 참고 귀를 기울이였다. 썬세기노래는 노래자체에 만 흥취가 있는게 아니라 부르고 넘겨받는 풍정 또한 흥취롭고 들을만하였다. 누구나 뜨겁고 숨가쁜 정황이어서 목청을 오래 뽉자면 매우 힘들기때문에 한 사람이 힘자라는것 썬세 세고나서 《서른이요!》 하고 크게 웨치며 넘기면 받는 사람이 열른 《서른은 삼십이요 삼십은 서른인데...》 하고 받아준다. 또 넘기는 사람이 《원이요!》 하고 넘기면 받는 사람이 《원이면 오십이요 오십이면 원인데 절반이나 가운데나 중등이나...》 하면서 원이 백의 절반이고 가운데이고 중등이 된다는 뜻으로 썬세기를 재롱스럽게 엮어대는데 웃음이 절로 난다.